

음악영재 교육을 위한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개발

신 혜 경* · 정 진 원**

본 논문은 서울시 지원 하에 진행된 A대학 음악영재교육과정의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사례를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창의적·음악적 사고능력 중심의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 둘째, 이에 근거하여 연차적으로 개발·적용된 '음악창의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셋째, 적용과 병행하여 이루어진 개발 과정상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친 3개년의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와 문헌의 고찰을 통해 음악영재성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의 음악인지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사고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이를 근거로, 감지-체화-구성의 수업절차, 개념, 맥락, 활동의 수업요소, 그리고 개념, 기능, 활동의 난이도를 중심으로 창의성 중심 영재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능중심의 전통적 음악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대안으로서 예술적-창의적 사고과정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의 제안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음악영재, 창의성, 음악적 사고력, 음악인지

차례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성격 및 제한점

II.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

1. 음악영재성과 음악 인지능력
2. 창의성과 음악적 창의성 축진을 위한 음악활동

III.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성격

1. 프로그램의 배경
2. 교육대상 및 선발과정
3. 프로그램의 목적

*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연구원

**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교수(jwchung@cnue.ac.kr)

IV. 음악창의성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와 개발과정

1.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구조
2. 교육 내용의 구성
3. 수업체제의 구성과 수업활동의 진행
4. 연차별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중점과 활동내용의 변화

V.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영재교육의 강화를 제안한 이후,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2002년에 ‘영재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어 국가정책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재교육은 개별학교, 교육청, 대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관과 경로를 통해 확대 발전되어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영재교육도 확산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교육은 과학이나 수학 등 비교적 제한된 학문분야로부터 출발하여 최근에는 음악과 미술을 포함하는 예술영재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대상의 폭이 넓게 확장되어 왔다. 더욱이 근래에 들어서는 학교교육에 있어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그리고 수학(mathematics)의 융·통합적 이해를 강조하는 STEAM 정책 등을 통하여 영재교육에 있어서도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음악영재를 위한 교육도 과학이나 수학영재교육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별학교, 교육청, 대학수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대부분의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은 음악영재성을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으로 이루어지는 내재적·정신적 과정으로 보는 현대의 음악영재이론보다는 음악의 연주에 필요한 기능의 빠른 습득을 음악영재성의 조건으로 보는 전통적 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음악영재 프로그램은 영재의 선발에 있어서도 전공악기에 대한 선행교육을 전제로 하는 실기시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적·정신적 과정으로서의 음악영재성에 대한 선발기준은 찾기 어렵거나 보조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서울시의 지원 하에 A대학교 주체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대상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예비음악영재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예비영재의 선발에 있어 음악영재성의 중요한 잠재적 요인인 청각변별·인지검사와 함께, 악기에 대한 선행학습이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음악행동검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잠재적 영재성 개발을 위한 '예비음악영재 프로그램'은 선발에서 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실기교육과 함께 음악에 대한 창의적 사고과정을 개발하고 확장시켜주기 위한 '음악창의성수업'을 핵심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이루어진 '예비음악영재 프로그램'의 적용을 병행한 개발과정의 사례 보고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음악창의성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음악창의성 이론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연차적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제안점을 논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기능위주의 음악영재교육으로부터 예술적·창의적 사고과정으로서의 음악영재교육의 관점변화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확산되고, 사고과정으로서의 음악영재교육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현장의 음악영재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성격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시의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사업’의 일환인 ‘예비음악영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음악창의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적 사고력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창의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3년에 걸쳐 실제 영재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순수 이론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성격과 범위로 인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 음악영재성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초기 음악영재 교육관점에서 접근한 것임으로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계획-적용-분석-수정’의 순환적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내용을 제시하고 교육적 의미의 탐색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 결과와 그에 따른 학생 산출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교육적 유효성 고찰은 차후 연구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밝혀 둔다.

Ⅱ.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

1. 음악영재성과 음악 인지능력

20 세기를 통해 이루어진 음악심리학과 음악교육학의 발달은 인간의 음악적 능력 발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에 따라 음악 영재성 역시 천부론적, 신비주의적 이해에서 벗어나 발달적이며 분석

적인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특히 음악교육학에서 주시하는 바는 음악 영재성의 사례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음악 재능의 구성요인들과 이러한 요인들이 뛰어난 음악능력으로 나타나는 발현 과정에 관한 것이다.

맥퍼슨(McPherson, 2003)은 가네(Gagne, 2003)의 영재성 차별화 모형(Differentiated Model for Giftedness and Talent: DMGT)을 적용하여 음악 영재성을 설명하고 있다. 맥퍼슨은 음악영재성 역시 가네의 'DMGT'의 핵심 요인들인 개인의 잠재적 능력요인, 개인의 성격적 요인, 발달과 성장과정의 요인, 환경적 촉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자극하거나 상호 연계 시켜주는 기회(chance)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며, 음악적 잠재성이 나타나게 되는 음악재능의 유형으로 연주(performing), 즉흥연주(improvising), 작곡(composing), 편곡(arranging), 감상(appreciating), 지휘(conducting) 그리고 음악지도(teaching music)의 여덟 가지 유형을 예로 들고 있다. 음악 재능의 유형은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더욱 다양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주목할 바는 음악영재성의 근거가 되는 잠재적 능력 요인들과 그 발현 과정이다. 가네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 위한 잠재적인 요인으로 지능(intellect), 창의성(creative), 사회-정서적(socio-affective) 요인, 그리고 해당 영역과 관련된 감각-운동적(sensori-motor) 능력요인을 들고 있는데, 맥퍼슨은 이를 음악적 지능, 음악적 창의성, 음악적 사회-정서 성향, 그리고 음악적 감각능력(sensori ability)으로 치환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음악적성으로 이해되는 소리에 대한 민감감과 정확한 지각능력은 음악재능을 구성하는 주요한 조건이며 소리에 대한 경험들을 기억하고 추상화, 추론화하여 음악적으로 이해하는 지적 기능인 음악 지능은 높은 수준의 음악적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결정적인 능력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p.241). 그러나 음악영재성의 확인과 발굴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유전적 요인으로서의 음악적성과 음악지능, 혹은 음악 창의성의 요인이 발달과 학습, 그리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능력 특성(ability traits)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특히 잠재적 음악영재성의 발현에 있어 다양한 음악적 경험, 학습을 통한 음악인지능력의 자극과 계발은 잠재적 음악 영재성이 보다 분명한 양상을 띠는 음악적

재능으로 구체화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McPherson, 2003).

음악 영재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헤로투וני안(Haroutounian, 2002)은 음악적성(music aptitude), 음악적 인지능력(musical intelligence), 음악적 기술과 기술(musial skills and technique), 음악적 창의성(music creativity)을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들고 있다(표1).

<표 1> 음악영재성이해를 위한 음악 능력 요인 (Haroutounian, 2002)

음악적성 (music aptitude)	- 소리를 지각, 감지하고 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 - 앞선 음악경험을 기억하고 연상할 수 있는 능력 - 학습과 훈련에 앞서 가지고 있는 능력 - 다양한 음악활동의 기반이 되는 능력
음악지능 (music intelligence)	- 소리의 경험을 통해서 음악개념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 - 음악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하나의 음악경험과 또 다른 음악경험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는 능력 - 누적된 음악적 경험으로부터 음악이해의 범위를 확장 할 수 있는 능력
연주능력 (performance)	- 악기의 기본 주법 및 테크닉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감각 기능 - 정확하고 민첩한 연주 기능 -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구현 할 수 있는 음악적 표현 능력
음악적 창의성 (music creativity)	- 자발적으로 음악을 구성하거나 표현하는 즉흥연주 능력 - 음악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반응하거나 표현하는 능력 - 표현에 몰입하여 자신의 느낌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 - 노래나 악곡 등의 작곡을 통하여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헤로투וני안 역시 위와 같은 음악재능 요인으로 구성되는 음악 영재성을 발달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음악재능요인들은 유전에 의하여 결정되는 선천적 측면과 경험, 교육에 의하여 개발되는 후천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교육적 차원에서 음악적 재능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음악재능 발현의 기반적인 요인으로서의 음악적성과 음악적 지능은 지속

적인 음악적 자극과 경험, 다양한 음악활동들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음악적 사고와 표현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음악 재능의 핵심적인 능력으로 발달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음악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Haroutounian, 2002).

밤버거(Bamberger, 1986)는 뛰어난 음악 인지능력을 음악영재성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음악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민감한 청각각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주어진 음악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반적 수준의 음악능력을 보이는 어린이들에 비하여 도약적인 사고의 전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약적 사고는 언어나 수리 영역에서 보이는 논리적 사고와는 구별되며, 음악적 문제해결과 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사고 특성이며 도약적 음악 사고가 소리를 구성하고 음악을 만드는 음악 창작 과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는 것으로 보아 창의적 음악활동이 음악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적 지각능력과 음악인지 능력은 음악 재능발달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주요 능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음악적 지각 능력과 인지능력은 음악적 경험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음악적 창의성 또는 음악적 연주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음악 재능 개발을 위한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적성이 발현되고 음악인지, 음악지능의 축진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그에 따른 체계적 학습의 필요성은 음악영재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창의성과 음악적 창의성 축진을 위한 음악활동

영재 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은 보편적 능력과 뛰어난 능력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해되어 왔다. 창의성 연구 전반기에는 보편적 의미의 창의성이 갖는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였으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그리고 정교성과 민감성 같은 요인들이 창의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연

구가 전개되면서 창의성의 특성 뿐 아니라 창의적 결과물의 가치적 조건,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또는 창의적 결과물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의 과정 그리고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환경과 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Gowan, 1980; Davis, 1981; Tranffinger, 1986; Sternberg & Lubat, 1993).

창의성은 자신의 다양한 능력 자원을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이며 독창적인 결과로 이끌어 내는 요인으로서 영재성을 결정짓는다(Sternberg & Lubat, 1993).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민감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 요인이며 영재교육의 차원에서는 창의성의 발현과정 즉 창의적 사고과정의 이해를 더욱 중요한 문제로 조명하고 있다(Davis, 1981; Runco, 1993). 이같이 창의성의 출처를 사고과정으로부터 이끌어 낸다고 했을 때, 창의성은 영재성의 이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역 특화적인 차원에서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Baer, 1999). 음악적 창의성은 음악적 차원의 창의적 사고과정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전통적인 이해에서의 음악 창의성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음악 창작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능력요인이지만 활동 주체의 생각과 정서, 의도가 내면적 성찰의 과정을 거쳐 음악적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즉흥연주와 창작과 같은 창의적 음악활동 뿐 아니라 연주, 분석, 감상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음악적 활동과 관련되는 능력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웹스터(Webster, 2002)는 음악적 창의성을 모든 음악활동에서 나타나는 창의적 의도와 창의적 사고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로 얻어지는 창의적 산출물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창의적 산출물을 기대할 수 있는 음악적 활동에는 작곡, 작곡된 작품의 연주, 듣기 그리고 창작과 연주가 결합된 즉흥연주 등의 음악활동이 포함된다.

웹스터는 음악적 창의성이란 가치 있고 독창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의적 음악 사고과정으로서 이를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상호 전환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설명한다. 수렴적 사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음악적 개념과 능력을 중심으로 접근되는 단계적 사고를 의미한다면 발산적 사고란 기존의 음악적 시도와는 다른 방식과 수준의 도약적 사

고로서 음악적 창의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웹스터의 모형에서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할 요인은 개인의 발산적 혹은 수렴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는 ‘가용 기능(enabling skill)’과 ‘가용 조건(enabling condition)’이다. 가용 기능이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적 민감성, 개념적 이해능력, 기능적 숙련도 그리고 미적 감각 등의 능력 특성으로 해당 시점에서 발산적 또는 수렴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능력적 요인은 음악적 활동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며, 창의적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적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능력은 학습, 도전적 과제, 맥락적 경험, 정서적인 자극 등의 외부 요인(가용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수렴적 사고에서 발산적 사고로 반복적인 순환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창의적인 음악 산출물을 생산하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웹스터가 제안하는 창의적 음악사고과정은 각각의 음악활동에서 각기 다른 능력요인과 발현 조건들을 필요로 하게 되지만 음악창의성의 핵심을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는 ‘순환적 사고과정’으로 본다는데 의의가 있다(정진원, 2010).

음악영재교육에 있어서 창의적 음악사고가 갖는 의미는 영재성 계발을 위한 접근으로서 음악적 창의성 신장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창의적 음악사고의 원천은 다양한 음악경험과 기반 지식, 기능들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이 창의적 산출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음악적 경험과 활동들이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교수-학습적 차원에서 창의적 사고를 촉진 할 수 있는 적절한 경험과 활동이란 무엇 일까? 창의적 사고과정에 대한 정교한 도식을 제안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글짓기, 만들기, 작곡, 즉흥 표현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창조적인 활동(creation)들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학습활동들은 창의적 사고를 촉진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Davis, 1981).

작곡과 즉흥연주는 대표적인 음악적 창조 활동으로서 다양한 범주와 단계로 개념, 표현, 창작의 기제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창의적 음악 사고를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크라투스(Kratus, 1996)는 즉흥연주능력을 연주 기능, 음

악적 지식, 창작 능력의 세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능력이며, 여섯 단계의 발전적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다고 제안한다(<표 2>).

<표 2> Kratus(1996)의 즉흥연주 능력 발달의 단계

단계	내용
stage 1: exploration	연주기능, 연주를 통한 음악적 개념 습득
stage 2: process oriented	음악적 아이디어를 단편적으로 연주해 봄으로 즉흥연주의 기본 어휘를 익힘
stage 3: product oriented	음악적 기본 표현 외에 숙어적 음악표현을 연주 기술을 살려 표현 할 수 있음
stage 4: technical fluency	즉흥연주의 기본 기능을 익히고 음악적 표현 의도와 연주 기능이 더욱 자연스럽게 연결됨
stage 5: structured improvisation	즉흥연주의 전체를 볼 때 분명한 구조와 음악적 통일성을 갖추며 연주의 정교함이 이를 뒷받침 함
stage 6: style oriented	해당 장르의 음악 어법을 준수 할 뿐 아니라 연주자 자신만의 특징적인 스타일로 발전함

즉흥연주 능력이 음악적 사고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동들의 즉흥연주능력 발달의 양상에서도 드러난다. 다울링(Dowling, 1988), 아자르(Azzara, 2002), 브로피(Brophy, 1999) 등의 연구들은 아동들이 한정된 음정과 리듬을 활용한 자발적 즉흥연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이러한 능력들이 발달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브로피(Brophy, 1999)는 어린 아동들이 반복적인 즉흥연주를 시도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활용하는 리듬패턴의 다양성과 즉흥연주에서 나타나는 구조화의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가락의 적용을 확장하고 즉흥연주에 형식적 구조를 반영 할 수 있는 능력도 보다 구조화된 학습이 제공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Ott, 1996).

크라투스의 즉흥연주 능력 발달 단계와 기타 즉흥연주능력과 관련된 연구들로부터, 창의적 음악적 사고가 개념의 습득과 연주를 통한 표현적 경험 그리고 음악적 구조 안에서 이를 적용하는 능동적 구성활동을 통해서 자극되고 발전될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이 구조적으로

내재 되어 있는 즉흥연주, 작곡과 같은 활동은 창의적 음악 사고를 자극 할 수 있는 효과적 활동 기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헤로투오니안은 음악적 창의성이 단지 작곡, 즉흥연주와 같이 음악적으로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내는 활동에서 뿐 아니라 음악을 느끼고 표현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음악적 창의성은 음악을 경험 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수성 있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체적인 음악적 의도를 음악적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요인으로서 음악영재성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극, 신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Ⅲ.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성격

1. 프로그램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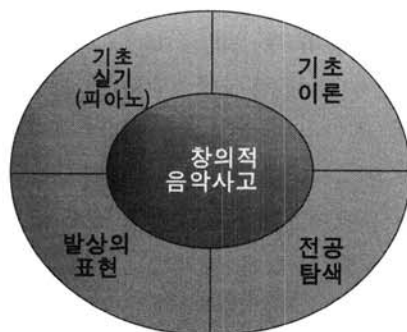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음악창의성 프로그램은 A대학교 음악영재 아카데미의 과정 중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예비음악영재교육과정의 핵심 교과이다. 예비음악영재과정은 영재성의 발굴과 개발에 있어 실기 훈련(technical training)에 앞서 창의적 음악 사고력(musical thinking)을 길러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음악적 사고력은 이미 이론적 배경을 통해 살펴 보았듯이 다양한 유형의 음악 능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능력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음악영재교육은 실기 기능 연마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전문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예비음악영재교육과정의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은 기존의 실기 중심 음악영재교육에서 전환하여 음악적 사고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방법을 개발·적용 해 봄으로써 그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

A 대학교의 예비음악영재교육과정은 교육지원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영재교육’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에 관계없이 음악적 영재성을 가진 초등학교 3-5학년 아동들을 2009년도와 2010연도에 각 15명 그리고 2011년도에 20명(각 학급 10명씩 2학급)을 선발하여 음악적 사고력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전공별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악기를 다루어 본 경험이 요구되고 있어 저소득층 가운데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은 한정적이며, 기본적인 악기교육조차 여의치 못한 잠재적 음악영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 하여 ‘예비영재과정’은 선행 악기교육경험을 배제하고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잠재력을 변별하여 이를 계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다.

예비음악영재교육과정은 학기 중에 실시되는 정규교육과정과 여름방학 기간에 이루어지는 집중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규교육과정은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을 핵심교과로 하여 음악의 기초기능을 길러주기 위한 ‘기초 실기’와 ‘기초이론’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름방학 중 일주일간에 이루어지는 집중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넓혀주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발상의 표현’ 수업과 여러 가지 악기를 경험하고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악기를 선택 하도록 하는 ‘전공 탐색’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그림 1] 예비영재교육과정의 구조

2. 교육대상 및 선발과정

예비영재의 모집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전공영역 입문 이전의 기초음악성 및 창의적 음악사고력 개발에 두고 그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운용과 제반 여건의 문제를 반영하여 해당 교육과정은 그 대상을 서울 거주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 중 음악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선발하였으며 그 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예비음악영재의 선발절차

1차	서류심사(공통)	■ 지원자격심사
2차	인지검사 (공통)	■ 한국음악인지능력검사(KTMC, 최은식)*
3차	연주능력 및 심층면접심사	■ 음악표현능력심사

대상의 경제적 지원 자격을 점검하는 서류 심사에 이어 실시되는 2차 단계는 소리에 대한 감수성 및 기초 음악 인지능력을 확인 하는 절차로서 한국음악인지능력검사 (KTMC)를 실시하여 음고와 리듬의 단순 조합에 대한 변별력 외에 가락/화음, 리듬/박자, 가락선/주선율 과 형식/성부조직의 네 가지 영역에서 보다 확장된 음악적 요소들에 대한 변별력을 중심으로 소리를 음악으로 인지하는 기초 능력을 점검하였다.

3차 단계는 리듬, 가락 듣고 따라 하기, 음악적 표현성 및 주어진 패턴에 대한 즉흥 응답구 만들기를 포함하는 음악표현능력심사를 실시하였다. 음악 표현능력심사를 통해서도 소리에 대한 실제 감수성과 표현의 순발력을 통해서 단체지필측정도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는 개인 특성과 학생의 적극성, 집중도 및 간단한 표현 협응력을 관찰하였다. 최종 선발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확인된 대상 중 인지능력검사, 적성검사 및 음악표현능력심사의 총점의 합을 근거로 이루어 졌는데 연도별 선발 대상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예비영재과정 학년별 선발내용

년도	3학년	4학년	5학년	합
2009/1학급	4	7	4	15
2010/1학급	5	6	4	15
2011/2학급	A 5	5	0	20
	B 0	0	10	

3. 프로그램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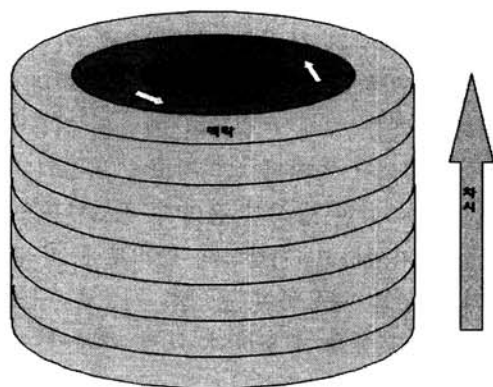
예비음악영재교육과정의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과 표현을 통하여 음악적 사고력을 확장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음악적 사고능력은 음악의 재료인 소리의 특성을 지각, 인지하고 이를 음악적 표현과 의미 전달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적용, 구성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모든 음악활동의 원동력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음악창의성 프로그램은 음악적 기본개념들의 체계적 학습과 함께 음악적 사고능력과 창의적 음악발상을 촉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비음악영재’과정은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표준이상의 음악적성과 인지능력 그리고 높은 음악적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음악성을 구체화 시키고 음악적 재능을 보다 분명하게 변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음악창의성 프로그램은 개념중심 음악사고력 프로그램으로서 음악적 재능을 자극하고 이끌어내기 위한 초기 음악영재교육과정의 역할 뿐 아니라 심화 음악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과정을 통하여 잠재적 음악영재들의 음악적 가능성과 특성을 보다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재성 발굴의 의미를 지니는 과정이기도 하다.

IV. 음악창의성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와 개발과정

1.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구조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은 잠재적 음악영재성의 계발에 있어 창의적 음악 사고능력을 핵심 요소로 두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창의적 음악 사고란 음악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음악적 경험 안에서 이해하고 나아가 음악활동을 통해서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음악적 정신 활동으로 본다. 창의적 음악 사고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은 음악개념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교육 내용의 선정, 음악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감지-체화-구성의 순환적 3단계 수업체제, 그리고 내용과 활동 수준의 차시별 심화를 통한 음악성의 단계적 개발로 설명 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음악창의성 프로그램의 구조

교육과정의 단위 학습활동은 해당 위계수준의 음악적 개념 이해를 목적으로 구성 된다. 학생들은 해당 음악적 개념을 감지-체화-구성의 수업과정을

거치며 즉흥연주와 창작에 습득 개념을 적용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전체 활동의 구성은 해당 음악개념을 음악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음악적 맥락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업의 총체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감지-체화-구성의 과정은 음악적 개념 습득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 음악 사고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주의적 음악학습기제로 설명될 수 있다.

감지단계는 새로운 음악적 개념이 음악적 맥락을 배경으로 제시되는 단계로서 학생들은 분리된 개별적 소리 자극이 아닌 표현성과 의미를 지닌 음악개념으로 경험하게 된다.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학습 목표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학습하여야 할 개념은 그 속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음악적 맥락을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음악적 상상력과 음악적 사고의 확장을 자극 할 수 있도록 한다.

체화 단계는 감지된 음악적 개념과 재료들을 보다 확실하게 습득하고 체득하는 단계로서 이를 위한 다양한 교수법적 전략들이 적용된다. 체화 단계에서는 듣기, 노래하기, 악기연주하기와 같은 음악적 활동들을 다양한 학습 소재와 연계시킴으로써 개념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기능을 익히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이다.

구성 단계는 체화 단계를 통해서 습득된 개념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창의적 음악 구성활동단계로서 창의적 음악사고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즉흥표현, 즉흥연주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음악적 창조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사고와 표현의 독창성을 자극하고, 학생들의 준비도에 따라 음악적 의도를 담을 수 있는 표상과 악보를 적용하여 음악적 사고를 구조화 시키는 단계이다. 학생주도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하여 학생 개개의 음악적 특성이 보다 자유롭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도 구성단계의 주요한 목표이다.

2. 교육 내용의 구성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음악적 맥락을 중심으로 음감과 리듬감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화성감과 악곡 구성의 기본 형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단계적 구성을 고려하였다. 음감과 관련된 단위 학습 주제의 선정은 다양한 조성감을 경험하고 익힘으로써 음악적 감수성을 확장 시키는데 중심을 두었다. 특히 일반적인 장조-단조 중심의 접근 외에 아동의 음감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5음 음계, 선법 등의 조성적인 소재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다. 화성과 관련된 개념들은 이론적으로 설명하거나 별도의 학습주제로 다루지는 않으나 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악곡 중심의 음악 체험을 통해서 맥락적 경험으로 감지하도록 구성 하였다. 리듬감과 관련된 학습 소재는 2박, 3박을 중심으로 기본 박의 느낌과 각 박자의 유형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리듬 패턴을 고려하였으며 음악의 총체적 구성과 관련하여 악기와 음색, 강약 등의 표현적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개념 구성 요소 외에 총체적 음악경험으로서의 다양한 유형의 음악활동과 그에 따른 표현 기능적인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었다. 이러한 내용요인들은 크게 개념적 요소, 맥락적 요소, 활동적 요소로 구분될 수 있으며 <표 5>와 같다.

<표 5>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구성 지표

구성 요소	지도 중점	예시 주제
개념적 요소	음악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 음색 등의 음악개념 요소	2박, 2박의 리듬패턴, 3박, 3박의 리듬 패턴 - 음고, 가락의 움직임, 선법, 조성 - 소리의 강세와 강세의 변화, 악기의 음색, - 리듬의 반복과 변화, 대조
맥락적 요소	- 악곡을 배경으로 경험되는 음악 개념 요소의 특징 - 음악적 개념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양식과 형식의 악곡	2박자의 악곡, 3박자의 악곡 - 도리안의 노래, 믹소리디안의 노래, 장조의 노래 - AB 형식의 악곡, ABA 형식의 악곡, 론도 악곡
활동적 요소	음악적 개념과 맥락을 감지하고 익히며 적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음악활동	- 노래 부르기 - 악기 연주와 악기 연주 기능 - 듣기와 변별 능력 - 즉흥연주 - 작곡과 기보

3. 수업체제의 구성과 수업활동의 진행

단위 수업의 전개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습의 주제가 되는 음악 개념을 익히고 숙련(mastery)하여 창의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된 개념을 음악적 사고 능력으로 확장하도록 하는 감지-체화-구성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감지 단계는 익혀야 할 음악적 개념 요소를 음악적 맥락 안에서 경험하는 과정으로 주제 개념을 포함하는 악곡을 가창, 연주, 악곡에 따라 신체표현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감지 단계의 초점은 배워야 할 음악요소를 악곡의 맥락 안에서 경험함으로써 학습의 최종 단계인 창의적 구성 활동의 기반 경험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체화 단계는 주제 개념 요소를 확실히 이해하고 이를 표현 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 하는 과정으로 패턴을 중심으로 한 반복 따라 하기, 변별, 변형 활동 등을 적용한다. 체화 과정에서는 학습 주제에 따라 적절한 교수법을 적용하게 되며 특히 주제 개념의 숙련(mastery)이 주요 목적이다. 이렇게 익혀진 개념은 즉흥연주와 창의적 구성활동을 거치며 명료화되며 구성활동의 결과들을 그림 악보, 도표 악보, 오선보 등의 다양한 기보방법으로 기록해 봄으로써 음악개념의 추상화 및 기보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표 6).

<표 6> 음악창의성 수업의 진행 과정

학습단계(steps)	활동내용(activities)	학습매개(media)	시간
감지 (Sensing Tonality & Rhythm)	▪ 듣고 구별하기 ▪ 듣고 따라 부르기 ▪ 듣고 움직이기 ▪ 듣고 연주하기	지각적 경험 청감각적 경험과 표현 (aural/oral)	20분
체화 (Personalizing Concepts)	▪ 가락, 리듬 패턴 익히기 ▪ 노래로 표현하기 ▪ 여러 가지 악기로 표현하기 ▪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기 ▪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하기	노래 악기	40분
구성 (Constructing Music)	▪ 즉흥표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소리, 가락, 리듬 만들어보기 ▪ 여러 가지 악기, 가락, 리듬, 셈여림을 구성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 그림, 도표, 악보로 음악 구성해 보기	기호(Symbol)화	40분

4. 연차별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중점과 활동내용의 변화

1) 연차별 프로그램 구성 중점의 변화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수업의 과정적 단계와 내용 구성의 체계는 음악 교수-학습의 이론적 근거와 음악 영역의 지식 기반 체계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으나 이를 실제 교육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습의 주체인 대상 학생들의 특성과 학습반응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본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은 교사와 음악교육학자들이 함께 계획-적용-반성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창의적 음악 사고능력 개발과 관련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들을 성찰하였다.

첫 째, 어떤 소재와 활동이 음악적 기초 사고를 열어주는데 유효 할 것인가?

둘 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기초사고를 넘어 창의적 사고로 진행하고 있는가?

셋 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이끌 것인가?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계획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관찰된 내용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수정을 거듭하였으며 2009년부터 3년 간 진행되고 있는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의 중점은 다음과 같이 변화 되어 왔다(표 7).

<표 7> 연차별 프로그램 개발·적용 지표의 변화

년도	개발의 중점
1차년도 (2009년)	- 창의적 사고중심의 통합적 활동 방법과 학습 소재 개발 - 창의적 적용 활동을 통한 음악사고의 확장 가능성 탐색 - 교사-아동간의 상호 작용 탐색 1차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한 반성적 탐색

2차년도 (2010년)	- 창의적 음악사고 중심의 통합적 활동 방법과 학습소재의 지속적 적용 - 기초 타악기 주법 익히기와 연주 기능 습득을 통한 음악적 협응 능력의 고령 - 오르프 악기를 활용한 즉흥연주 활동 비중 확대 - 다양한 악기를 도입한 총체적 음악 경험의 효과 탐색
3차년도 (2011년)	- 감지-체화-구성의 수업 체계의 유효성 점검 및 재정리 -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체계성 점검 - 음악사고의 통합적 요인으로서의 음악적 맥락의 역할 정리와 적용 - 즉흥연주와 창작의 연계적 적용 방법 모색 - 오션기보를 통한 기호화(symbolization) 지도 방안의 모색

2) 프로그램의 적정화 과정

교육활동의 타당성과 유효성은 지속적인 수업 관찰과 그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수업 활동의 진행은 주교사와 보조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주교사는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음악교수법에 대한 전문 지도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업의 주 진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보조 교사는 음악교육을 전공한 인력으로서 주교사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습활동의 진행을 돕고 학생들의 그룹 활동 참여를 통해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수업의 효과적 진행과 학습 목표의 성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주교사와 보조교사 외에 2인의 음악교육학자가 필수적으로 수업을 참관하여 수업 진행의 효과적인 측면과 학생들의 성취과정, 반응을 관찰하였다. 수업의 전 과정은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사후 반성과 수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은 사전에 계획된 연간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의 전후로 2회의 분석회의를 실시하여 각 수업에 대한 효과와 학생의 반응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다음 차시 수업계획에 반영하여 활동 지도의 방법과 세부 교육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수정-개발해 나아갔다. 수업 분석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과 수업효과들을 종합하여 차기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과 지표선정에 적용하였다.

3) 연차별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및 적용에 따른 시사점

(1) 1차년도(2009년)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사점

2009년도에 실시된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은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적용과정을 관찰-분석하면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갔다.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점은 학생의 반응을 통해 목적인바 음악적 사고과정이 발생하고 있는가와 당초 계획한 음악활동 방법과 소재에 대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몰입하여 기대되는 반응 보이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은 1차년도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 내용이다(표 8).

<표 8> 1차년도(2009년)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주제	감지	체화	구성
1 오리엔테이션 (활동 익히기)	- 쉬운 노래 따라 부르기 - 반복과 변화	- 가락 패턴 따라 하기 - 리듬 패턴 따라 하기 - 듣고 변형	- 악기의 음색 구별하기 - 소리의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2 오음음계 2박 I	5음구성의 노래 2박의 강세 2박의 리듬 - 빠르기의 변화	5음 음계의 가락 패턴 익히기 2박의 기본 박과 여러 가지 리듬 패턴 익히기	그림 패턴을 소리로 표현하기
3 오음음계 2박 II	지난 시간의 노래로 5음 음계의 느낌 알기	- 음향 타악기의 바른 주법과 음색 익히기 - 악기로 표현되는 소리들은 도형 그림으로 그리기	도형을 구성하여 소리로 표현하기
4 민요음계 2박	- 민요음계의 노래 - 가사와 리듬의 변화 - 가락과 리듬 오스티나토	- 민요음계의 표현 2박의 리듬 패턴 익히기 - 리듬 오스티나토 익히기 - 신체와 악기 리듬표현	오스티나토 반주를 여러 가지 약속으로 구성하여 연주하기

5	Dorian 3박 I	■ 도리안 음계의 노래 ■ 3 박의 강세	■ 도리안 노래의 가락 패턴 익히기 ■ 3박의 리듬 패턴 익히기	■ 리듬을 표현하는 방법 찾아보기 ■ 도리안 노래에 어울리는 리듬을 지어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보기
6	Dorian 3박 II	■ 도리안의 (I-IV-vii) 진행의 느낌 알기	■ 도리안 음계의 I-IV-vii에 따른 가락 패턴 익히기	■ 도리안 음계의 I-IV-vii에 따른 가락을 만들어 그려 보기
7	Mixolydian 6/8 박자 I	■ 믹소리디안 음계의 노래 ■ 6/8 박자의 강세	■ 믹소리디안 노래의 가락 패턴 익히기 ■ 6/8박자와 리듬패턴	■ 믹소리디안 구성음으로 가락 구성해 보기
8	Mixolydian 6/8 박자 II	■ I-vii-I의 근음 오스티나토가 있는 믹소리디안의 노래	■ 믹소리디안 I-vii-I의 가락 패턴 익히기 ■ 타악기의 주법과 어울리는 패턴 익히기	■ I-vii-I 진행의 가락과 리듬 변형 해보기 ■ 여러 가지 악기로 오스티나토 구성하기
9	Mixolydian 창작물	■ 8주차에 구성된 그룹별 창작물 감상하기	■ 그룹별 창작물에 나타나는 가락, 리듬 패턴들의 특징 알아보기 ■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기	■ 믹소리디안 창작물을 최종 정리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오선보로 기보 해 보기
10	Phrygian 6/8박자 I	■ 프리지안 음계의 가락 ■ 6/8 박자의 느낌 감지하기	■ 프리지안 음계의 가락패턴 익히기 ■ 여러 가지 타악기의 주법 익히기 ■ 악기에 어울리는 오스티나토 익히기	■ 가락에 어울리는 리듬 합주 구성하기 ■ 연주 형식표 (론도)에 따라 연주하기
11	Phrygian 6/8박자 II	■ 프리지안 I-ii-I 화음진행 느껴보기 ■ 반주의 변화를 느껴며 노래 부르기	■ 6/8의 다양한 리듬으로 오스티나토 반주 익히기 ■ 호흡을 맞추어 합주하기 ■ 강약의 변화를 표현하기	■ 주어진 화음으로 오스티나토 만들기

12	장조의 노래 2박-3박의 구별	- 장조의 노래 2박과 3박의 노래를 듣고 차이 느껴보기	- 장조의 가락 패턴 익히기 2박과 3박의 구별 2박 3박의 리듬패턴 익히기	- 장조의 가락 만들기 3박과 4박의 리듬 오스티나토 구성 - 다양한 연주 방법으로 구성하기
13- 14	통합 창작	- 그룹별 창작활동 - 선법적 소재: 도리안, 오음음계, 믹소리디안, 프리지안의 음계를 사용하여 가락 구성 - 리듬적 소재: 2박과 2박의 리듬 패턴, 3박과 3박의 리듬 패턴을 생각하여 리듬 구성 -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고려하여 연주 매체와 표현방법을 결정하기 - 연주의 전체적 구성을 결정하고 전체 창작 내용을 기보해 보기(교사 및 보조 교사의 도움)		

1차년도 창의성 프로그램의 쟁점은 ‘감지-체화-구성’으로 이루어진 수업 과정과 다루어지는 수업 소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몰입 등의 수용가능성과 창의성 수업이 의도한 개념의 적용이 구성 단계에서 나타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90분간 이루어진 긴 수업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몰입도와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제시된 개념이 체화되어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 구성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구체화된 활동과정과 그에 따른 반복학습과정이 요구되어 사전계획 되었던 음악개념의 범위와 난이도의 수정이 빈번히 발생되었다. 1차년도 프로그램의 적용을 병행한 개발과정을 통해서 논의되어진 종합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당초에 계획했던 활동의 내용 중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수정이 있었으며 차년도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내용의 양적 적정화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 2) 즉흥 표현, 소리의 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적 음악활동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몰입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 3) 다양한 타악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는데 비하여 활동의 많은 부분이 노래 부르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음악적 요구를 충족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 4) 학습한 주요 개념 요소를 즉흥연주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악기 연주 기능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식적 표현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관찰 할 수 있었다.
- 5) 학습활동 과정에서 학생 간 학습 능력과 성향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보조교사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확인 하였다.

(2) 2차년도(2010년)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사점

음악창의성 2차년도 프로그램은 1차년도의 내용체계를 유지하되 오르프 타악기를 중심으로 하여 악기를 활용한 즉흥연주 활동의 비중을 확대하여 구성 하였다. 이는 1차년도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인 악기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즉흥연주와 창작 과정에서 나타난 음악적 사고 능력을 악기라는 매체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과 수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자극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주 지도교사를 오르프 교수법을 이수한 음악교육학자로 대체하였고 2인의 보조교사도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예비교사로 대체하여 교육활동에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개인차에서 오는 보조적 지도의 필요성을 충족하도록 시도 하였다. 다음은 2차년도의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된 세부 활동 내용이다(<표 9>).

<표 9> 2차년도(2010년)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주제	감지	체화	구성
1 오리엔테이션 (활동 익히기)	쉬운 노래 따라 부르기	- 노래 부르기로 가락 따라하기 - 리듬막대로 리듬패턴 따라하기	악기소리의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2 악기의 음색	- 악기 노래 - 다양한 악기의 음색 탐색하기	- 악기의 음색을 듣고 느낌 이야기하기 - 악기의 음색을 듣고 악기 구별하기	-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악기로 표현하기 - 그룹별로 연주하고 의견을 나누기
3 2박의 리듬과 4마디의 돌림연주	2박의 강세 2박의 리듬 - 빠르기의 변화	2박의 강세를 살려 리듬 따라 하기 2박의 다양한 리듬 패턴 익히기 2박의 리듬으로 돌림 연주하기	2박의 리듬 패턴을 새롭게 구성해 보기 - 그룹별로 악기편성을 달리하여 2박의 리듬합주를 구성 해 보기
4 오음음계 2박 I	5음 음계의 노래 느낌 알기	- 음향 타악기의 바른 주법을 익히고 2박의 기본박을 연주하기 2박의 기본 박으로 5음음계의 노래에 리듬 반주 하기	2박의 기본박을 변형하여 노래에 리듬 반주 구성 해 보기
5 오음음계 2박 II	5음 음계의 노래 5음 음계의 구성을 알기	5음 음계 노래의 가락 패턴 익히기 - 음판 타악기의 주법 익히기 5도 보르둔의 반주에 맞추어 5음 음계 노래 부르기	5도 보르둔의 구성음을 활용하여 대성부 꾸며보기 - 노래와 대성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 해 보기 - 음판타악기, 노래, 대성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 해 보기

6	민요음계 4박 I	▪ 민요음계의 노래 ▪ 가사의 말리듬 익히기 ▪ 리듬스틱으로 4박의 기본박을 치며 말리듬 표현하기	▪ 4박의 기본박 익히기 ▪ 가사의 리듬 패턴 익히기 ▪ 리듬 오스티나토 익히기 ▪ 4박의 리듬을 신체타악기로 표현	▪ 가사를 바꾸어 말리듬 변형해 보기 ▪ 말리듬 오스티나토 꾸며보기 ▪ 리듬 스틱 오스티나토와 말리듬 오스티나토의 다양한 연주 형태 구성해 보기
7	민요음계 4박 II	▪ 민요 음계의 노래 ▪ 민요 음계의 구성음 익히기	▪ 민요 음계 노래의 가락 패턴 익히기 ▪ 5도 보르둔의 교차연주 익히기 ▪ 옥타브와 5도의 연속 보르둔 익히기	▪ 민요 노래에 맞추어 5도와 옥타브 보르둔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연주해 보기
8	Dorian 3박 I	▪ 도리안 음계의 노래 ▪ 3 박의 강세 ▪ 가사의 느낌 생각해 보기	▪ 도리안 노래의 가락 패턴 익히기 ▪ 3박의 리듬 패턴 익히기	▪ 가사의 느낌을 살려 다양한 음향 타악기로 표현해 보기 ▪ 도리안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보고 어울리는 빠르기, 강세, 타악기 표현을 구성, 기록해 보기
9	Dorian 3박 II	▪ 도리안의 (i-iv-VII) 진행의 느낌 알기	▪ 도리안 음계의 (i-iv-VII) 근음으로 음판 타악기 반주 붙이기 ▪ 근음진행(i-iv-VII)의 오스티나토 반주 익히기	▪ 도리안 음계의 (i-iv-VII)에 따른 가락을 만들어 그려 보기 ▪ 가락에 어울리는 오스티나토 반주 만들어 보기 ▪ 그림으로 구성한 음악을 나타내 보기
10	Phrygian 6/8박자 I	▪ 프리지안 음계의 노래 ▪ 6/8 박자의 강세	▪ 프리지안 노래의 가락 패턴 익히기 ▪ 6/8박자의 기본박을 치며 노래 부르기 ▪ 5도 보르둔으로 노래에 기본박 반주 붙이기	▪ 노래의 느낌을 살려 보르둔 반주를 구성해 보기 ▪ 보르둔 반주가 있는 노래를 악보로 그려 보기

11	Phrygian 6/8박자 II	- 프리지안 I-ii-I 진행의 느낌 - 가사의 느낌 생각하며 노래 부르기	I-ii-I 근음을 활용한 오스티나토 연주하기	- 프리지안 음계의 가락 구성해 보기 - 프리지안 음계의 보르둔 반주 붙여보기 - 구성한 노래를 악보로 그려 보기
12	블루스 4박	- 블루스 음계의 노래 - 블루스 음계의 느낌을 느끼며 리듬치기	- 블루스 음계의 구성음 익히기 - 블루스 음계의 가락 패턴 익히기 - 봇점 리듬 익히기	- 블루스 음계의 가락 만들기 - 가락에 어울리는 가사 붙이기 - 블루스 리듬을 살려 이듬 반주 구성하기
13- 15	창작발표 준비	12주차까지의 창작물을 중심으로 발표회 준비 - 노래에 어울리는 다양한 리듬 연주를 구성해 보기 - 계절이 어울리는 연주곡 연습하기 - 악곡의 느낌을 살려 다양한 타악기로 표현을 구성 해 보기		

2010년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쟁점은 음악 개념의 습득과 체화 그리고 이에 대한 창의적 구성과정에서 기악학습 매체가 갖는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가창과 신체활동 중심의 1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오르프 악기를 중심으로 한 음악 개념의 습득과 가창과 악기 연주를 연계하는 즉흥연주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은 프로그램 적용을 포함한 개발 과정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 들이다.

- 1) 오르프 타악기의 적용은 학생들의 악기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해 주는 효과가 확인 되었다.
- 2) 음판 타악기의 경우는 바른 주법과 연주 기능 익히기 과정으로 인해 1차년도 보다 더 많은 기능 습득 시간이 요구되었다.
- 3) 오르프 악기의 음역 제한 등으로 인하여 창의적 표현 활동에서 악기의 확대적용에 따라 예상된 장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 4) 창작에 따른 기보과정에서 발견되는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파악되었다.

- 5) 악기 활동에서 감지-체화-구성으로 연계되는 창의적 사고의 연동이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악기연주에서 요구되는 협용 기능으로 인하여 즉흥적인 개념의 다양한 적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 6) 창의적 사고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악기의 활용 범위와 적용 방법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안 되었다.
- 7) 차년도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창의적 사고능력 개발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체계적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 체계의 점검이 제안되었다.

(3) 3차년도(2011년)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사점

3차년도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은 [감지]-[체화]-[구성] 수업구조와 타악기를 전공한 예비교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악기활동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 상황을 제공하는 등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업 체계 및 내용 구성 유효성의 재점검을 시도하였다. 특히, 1, 2차년도의 프로그램 적용에서 제기되어온 음악 학습을 통한 창의적 사고 능력 개발을 특성화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의 체계화를 위해 기존의 [감지]-[체화]-[구성] 구조의 재정비에 주안점을 두었다.

1, 2차년도 프로그램에서 적용되었던 음악 내용 중심의 감지 단계를 신체 표현과 동영상, 사진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통합적 접근으로 확대하여 이후 습득, 구성 단계의 교수-학습 강화를 위한 입체적인 맥락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체화단계에서의 패턴학습은 패턴 자체의 학습이 목적이 아니라 학습자가 습득한 리듬, 가락패턴 형태의 음악재료를 이후의 구성 단계에서 재구조화하는 경험을 통해 음악적 사고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강화되었다. 음악재료의 체화는 교사가 제시하는 리듬, 선율 패턴의 노래와 악기 연주를 통한 모방과 즉흥문답, 그리고 기보를 통한 인지적 강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청각적으로 습득된 선율, 가락 패턴들을 음악적 상징으로 연결시키는 인지적 강화 과정을 통하여 1, 2년차의 프로그램 적용에서 제기되어 온 창작활동을 위한 기보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다음은 3차년도의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차시별 세부 활동 내용이다 (<표 10>).

<표 10> 3차년도(2011년)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주제 및 학습맥락	감지	체화/습득 ²⁾	종합
1	오리엔테이션 (활동익히기) 아프리카 음악I	■ 자기소개 (노래, 악기 연주, 춤 등의 장기자랑을 통한 자기소개)	■ 2/4박자 기본박 몸으로 익히기 ■ 리듬패턴의 습득	■ 학습한 리듬 패턴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분위기의 리듬악곡 만들기 ■ 제재곡에 맞춰 리듬반주하기
2	아프리카 음악II	■ 제재곡 '사랑하는 친구야'를 부르며 신체 리듬표현하기	■ 2/4박자 리듬패턴의 습득: 기본박	■ 모듬으로 리듬악곡 구성하기 ■ 론도형식 합주하기
3	아프리카 음악III	■ 교사의 타악기 반주에 맞춰 2/4박 리듬패턴 연주하기	■ 2/4박자 리듬패턴 습득: 세분박 도입	■ 아프리카 축제에서 연주할 리듬악곡 만들고 합주하기
4	그레고리안 성가	■ 중세성당의 영상과 그레고리안 성가 감상하기	■ 도리안 선율 패턴 습득	■ 악구들을 조합하여 그레고리안 성가 만들기 ■ 성악가가 연주하는 자신의 곡 감상하기
5	스카보로의 추억	■ 도리안 음계의 제재곡 '스카보로의 추억' 부르기	■ 도리안 선율 패턴 습득	■ 제재곡을 활용하여 도리안 선율 창작하기
6	3박자의 춤곡I	■ 3박자의 악곡(미뉴엣)에 맞춰 3박자의 느낌 몸으로 익히기	■ 3/4박자 가락패턴 습득	■ 모듬으로 3박자 춤곡 만들기 ■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자신의 작품 감상하기
7	3박자의 춤곡II	■ 지난 시간 자신이 만든 3박자 춤곡 감상하기	■ 3/4박자 가락패턴 습득	■ 모듬으로 3박자 춤곡 만들기 ■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자신의 작품 감상하기
8	리듬작곡	■ 2/4의 악곡 (피치카토폴카)에 맞춰 2박의 느낌 몸으로 익히기	■ 2/4박자 리듬패턴 습득	■ 타악기를 사용한 즉흥연주하기 (론도형식)

9	리듬작곡	2박을 몸으로 느끼기	2/4박자 리듬패턴 습득	2/4박자 리듬창작하기 - 타악기 연주자가 팀파니로 연주하는 자신의 작품 감상하기
10	2/4박의 노래곡	Weber의 '사냥꾼의 합창'을 듣고 노래곡과 2/4의 박자감 익히기	2/4박자 가락패턴 습득	8마디 노래곡 만들기 - 성악가가 연주하는 자신의 노래곡 감상하기
11	론도형식의 즉흥 연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부르기	4/4박자 리듬패턴 습득	론도형식의 즉흥연주하기
12	리듬즉흥변주 I	리듬합주하기 (지난 시간의 과제)	4/4박자 리듬패턴 습득	리듬변주곡 만들기
13	리듬즉흥변주 II	리듬합주하기 (지난 시간의 과제)	4/4박자 리듬패턴 복습	리듬변주곡 복습 및 즉흥연주하기
14	느낌을 통해 음악 만들기	'피터와 늑대' 감상을 통해 동물, 인물의 특징을 음악으로 나타낸 예 소개	4/4박자 가락패턴 습득	자신이 표현할 동물과 어울리는 악기를 선택하여 음악 만들기
15	a-b-a 세도막 형식 작곡	과제(a-b형식) 연주를 통해 악구의 같고 다름에 대한 감 익히기	4/4박자 가락패턴 습득	ab(8마디) 곡을 확장시켜 aba 형식의 작은세도막 악곡 만들기
16	즉흥연주	실용 연주를 통한 과제물의 확인을 통해 오스티나토 접하기	다양한 오스티나토 패턴 습득	익숙한 선율에 맞추어 오스티나토를 이용한 즉흥연주하기
17	창작발표 준비	1, 2학기에 걸쳐 구성단계에서 만들었던 창작물과 새롭게 배운 기악즉흥을 조합하여 발표회 준비하기 - 형식과 음색을 고려하여 악기조합과 연주의 전체적인 틀 구성하기 - 자신의 창작품을 직접 연주하여 무대에 올리는 과정 경험하기		

3차년도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본 수업에서 음악적 창의성의 개발은 실제 맥락의 음악경험을 통해 습득된 음악재료의 분해, 재구성, 종합의 활동을 거쳐 학생들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의미 있는 교수-학

2) 습득 단계는 제시된 가락 및 리듬 패턴의 모방, 즉흥응답, 기보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습을 위해서는 양질의 음악경험(예-패턴습득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음악연주형태, 완성된 창작품의 재현시 제공되는 연주의 질)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 2) 1, 2년차의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된 문제는 구성 단계에서 요구되는 창작 활동을 위한 기보능력 습득이다. 구성 단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 자유롭게 재구성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체화 단계에서 패턴의 청각적 습득과 인지적 강화 과정을 통해 얻어진 수준보다 더 심화된 단계의 기보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3) 작곡과 즉흥의 창작 활동에서 학생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스스로 개발, 구성,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한해야 할 요소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요소를 구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창작활동의 틀을 제시해야 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V.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창의적·음악적 사고능력의 수월성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 둘째, 이에 근거하여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이루어진, 적용단계와 병행하여 개발된 ‘음악창의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셋째, 실제 음악영재교육과정의 창의성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맥퍼슨, 헤로토우니안, 밤버거, 웹스터, 크라투스 등 음악재능과 음악창의성에 관한 문헌을 통해서 볼 때 음악영재성은 창의적 음악사고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음악적 경험과 체계적 학습을 통해서 발현되고 형성되어가는 발달적 능력기제로 이해 할 수 있었다.

음악창의성 프로그램은 음악적 맥락을 전제로 한 음악적 사고능력의 체계적 학습을 음악영재성 발현의 핵심과정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감지(sensing) - 체화(personalizing) - 구성(constructing)의 수업절차,

개념(musical concepts) - 맥락(musical contexts) - 활동(musical activities)의 수업요소, 그리고 개념, 기능, 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배열된 차시별 학습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음악영재 프로그램을 적용과 함께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사고과정 중심의 영재교육에 대한 시사점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소리로 표현하고자 하는 창의적 음악 표현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음악적 해결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때 수업에 대한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음악적 인지능력을 능동적 음악활동의 주요 요소로 보았던 본 프로그램 구성의 근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음악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습득된 음악개념들은 학생들의 즉흥연주와 창작 내용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수업이 진행되면서 개인에 따른 수준과 발전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음악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영재성을 자극하고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된 학습 내용은 음악적 개념, 음악적 맥락 그리고 활동을 통한 개념의 창의적 적용이라는 유기적 연계 학습 방법의 개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능중심의 전통적 음악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대안, 또는 보완으로써 창의적 사고과정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이론적, 실천적 수준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음악영재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음악교육전반에 대한 시사점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음악영재에 대한 창의적 사고중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연구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음악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정진원 (2010). 음악 창의성: 활동 유형별 특성 및 사고과정을 통한 재조명. *예술교육연구*, 8(3), 77-94.
- Azzara, C. D. (2002). Improvisation. In R. Colwell and C. Richardson (eds.) *The new handbook of research in musical teaching and learning*, pp. 171-187. Oxford: Oxford University.
- Baer, J. (2010). Is creativity domain specific? In J. C. Kaufman & R. J. Sternberg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pp. 321-34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mberger, J. (1986). Cognitive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musically gifted children. In R. Sternberg (ed), *New conception of giftedness*(pp. 389-413).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mberger, J. (1995). *The mind behind musical ear: How children develop musical intellig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phy, T. S. (1999). *The melodic improvisations of ages 6 through 12: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ntucky. 199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9(9) (3385A).
- Davis, G. A. (1981). Personal creative thinking technique. *Gifted Child Quarterly*, 25(3), 99-101.
- Dowling, W. J. (1988). Tonal structure and children's early learning of music. In J. A. Sloboda (ed.) *Generative processes in music: The psychology of performance, improvisation and composition*, pp. 113-128. Oxford: Clarendon Press.
- Gagne, F. (2003). Transforming gifts into talents: The DMGT as a developmental theory. In N. Colangelo & C.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pp. 60-74). Boston, MA: Allyn & Bacon.

- Gowan, J. C. (1980). The use of developmental stage theory in helping gifted children become creative. *Gifted Child Quarterly*, 24(1), 24-28.
- Haroutounian, J. (2002). *Kindling the spa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tus, J. (1996).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eaching music improvis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6, 3-13.
- McPherson, G. E. (2003). Giftedness and talent. In G. McPherson (ed.), *The child as musician*(pp.239-25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tt, D. (1996). *Effects of musical context on the improvisation of children as a function of age, training and exposure to music*.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7 (20) (1469B).
- Runco, M. A. (1993). Divergent thinking, creativity, and giftedness. *Gifted Child Quarterly*, 37(1), 16-22.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3). Creative giftedness: A multivariate investment approach. *Gifted Child Quarterly*, 37(1), 7-15.
- Trenffinger, D. J. (1986). Research on creativity. *Gifted Child Quarterly*, 30(1), 15-19.
- Webster, P. (2002). Creative thinking in music: Advancing a model. In T. Sullivan, L. Willingham (eds), *Creativity and music education*(pp. 16-34). Toronto: Britannia Printers.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 Creativity-Centered Education Program for the Musically Gifted

Shin, Hae-Kyung · Chung, Jin 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ase of development of a creativity-centered music education program as a part of a preliminary educational curriculum for children with musical giftedness. The whole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musically gifted, including the creativity-centered music education program, have been provided by the A Young Musicians Academy since 2009, sponsored by the city government of Seoul.

This study firstly examined theoretical backgrounds for the program, including the subjects of musical thinking and musical creativity. Followed was the introduction of creativity-centered music education program for technical skills for musical performance, which have been developed for the last three years.

Significant findings that have been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Previous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s reveal that a relatively sufficient body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s suggest that the creative thinking process based on music cognition plays a core role for developing musical giftedness. Based on this aforementioned theoretical exploration, this study proposes an instructional program, including instructional procedures of sensing - personalizing - constructing, instructional elements of musical concepts/materials - contexts - activities, and a graded series of contents, arranged by the difficulty level of learning materials.

This study suggests the program based on musical and creative thinking process can replace traditional music gifted programs, which puts emphasis on technical skills for musical performance, and provides alternatives at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levels.

key words: musically gifted, creativity, musical thinking, music cognition

투고일: 1월 31일, 심사(수정): 2월 26일(3월19일), 게재 확정일: 4월 4일